



토목의 날(3월 30일) 제정에 대하여

역사적 고찰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라고 볼 수 있는 삼국사기에 토목이란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신라 9대왕(伐休泥師今)4년, 서기 187년의 기록이다. 이해 봄 음력 3월에 “토목공사를 일으켜 농사철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無作土木之事 以奪農時)”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토목사업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이보다 94년 앞선 신라 7대왕(逸聖泥師今)11년으로 서기 138년 봄 음력 2월에 “농사는 정사의 근본이며, 먹는 것은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과제이니, 각 고을에서는 제방을 수축하고 전답을 넓게 개척하라(農者政本 食性民天 諸郡郡 修完堤防 廣闢前夜)”는 명령을 내렸다는 조항이 있다. 백제본기에는 토목 관련 기록은 백제 6대왕(仇首王) 9년으로 서기 222년 봄 음력 2월에 “담당 관에게 명하여 제방을 보수토록 하였다(命有司修堤防)”라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7년, 서기 1398년 음력 2월 8일 남문 준공, 동년 3월 3일 한양도성 축조로 역군을 돌려보냄(漢陽道成 完工日)”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제정 배경

조선의 수도를 한양(현 서울)로 정하고 도성(都城) 축조, 완공한 시기가 태조 7년 음력 3월 3일 즉 1398년 3월 3일이다. 그 후 정확히 600년 후인 1998년 대한토목학회는 한양 도성, 즉 서울 도성의 준공일인 음력 3월 3일의 양력날짜 3월 30일을 제1회 토목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초청의 글

대한토목학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토목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998년 첫 기념행사를 시작한 '토목의 날'이 이제 스물 한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목의 날은 토목공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속을 다지고 자축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토목공학의 국가 기여도와 사회적 역할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미래 토목공학인들의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학회!' 라는 슬로건을 선정하여 국민들 곁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선조들의 토목기술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한양도성을 순성하고, 다양한 경진대회와 공모전에 토목공학 관련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올해의 토목구조물 선정을 통해 토목공학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토목공학 차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이라는 건설정책포럼을 준비 중이며, 페이스 북을 통한 생중계를 진행하여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췌록 제21회 토목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3월
대한토목학회 제 50대 회장 김 홍 택



PROGRAM

3월 30일 (금)

11:30~13:30 **전국 토목관련학과 학과장 연석회의** (3층 중회의실)

14:00~15:40 **토목의 날 기념식 · 시상식** (2층 대회의실)

15:40~18:20 **건설정책포럼** *학회 페이스북 생중계 (2층 중회의실)
-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 -

16:00~18:00 **참여한마당** (2층 대회의실)

18:30~19:30 **축하리셉션** (3층 로비)

09:00~17:00 **공모전 및 경진대회 작품 전시** (2층 로비)
• 올해의 토목구조물
• 토목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 토목공학 UCC 경진대회
• 토목 홍보 디지털포스터 경진대회

사전행사

3월 24일 (토)

09:00~13:00 **서울 한양도성 순성 / 낙산 구간**